

전남 농협들 뭉쳐 年 3300억원 매출

연합사업단 출범 10주년...18개 사업단 해마다 매출 신장 2012년 광주도 5개 농협 결성...총 350억원 판매 실적

농협 전남지역본부 '연합사업단'이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연합사업은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산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 전남본부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운영되는 연합사업단은 원예조공법인과 광역연합을 포함한 18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강진·곡성·광양·담양·보성·영광·영암·장성·장흥·진도·해남·화순 등 12개 지역 연합사업단과 나주·목포·신안·무안·순천·함평 지역이 참여한 원예조공법인 5개와 광역연합인 '전남농협 원예유통사업단'이 바로 그것이다.

전남지역 농협 연합사업단 판매 실적은 ▲2016년 2878억원 ▲2017년 2955억원

▲지난해 3360억원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도 지난 달 말 기준 114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연합사업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연합사업조직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산자유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전남 연합사업 발전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를 열었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광양시 연합사업단'은 광양농협·동광양농협·광양동부농협·진상농협·다압농협·광양원예농협 등 광양 지역 6개 농협이 지난 2014년 결성했다. 이들 농협은 생산 지원부터 영농지도까지 유통 전 과정을 통합해 수도권 등 판로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사업단

은 매실·애호박·결구상추 등 전략품목과 토마토·복수박·백운배 등 육성품목 공선출하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85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광양시 연합사업단은 2014년 첫 매출로 3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성장세(2015년 64억→2016년 134억→2017년 125억원)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 농산물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애호박은 최근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나 홈플러스 등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고, 대표 특산물 매실은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해 매출을 4억원 늘렸다. 사업단은 27일 올해 첫 매실 출하식을 열며 매실에이드, 매실주, 매실청 등의 조리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사업단은 농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산자유동종합평가 및 원예산업종합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산자유동 전 과정을 통합해 수도권 등 판로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사업단

광주지역에는 동곡·평동·송정·대촌·본량농협과 중앙회 경제지주가 결성한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이 있다. 사업단 이름은 광주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빛찬들'에서 따왔다. 사업단은 평동 대추방울토마토, 송정 팽팽이가지, 동곡 애호박 및 흑토마토, 대촌 부추 등 원예농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은 지난 17일 현재 23억4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난 2012년 결성한 이후 ▲2016년 53억6600만원 ▲2017년 51억7100만원 ▲2018년 49억3100만원 등 총 350억원 이상 판매실적을 올렸다.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려면 농협의 산자유동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조직화 및 마케팅 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로 소비지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4.21 (-1.10)	↑ 금리(국고채 3년) 1.65 (+0.01)
↓ 코스닥 689.67 (-0.36)	↓ 환율(USD) 1184.50 (-3.90)

광주은행, 광주수영대회 입장권 기증



입장권 1000만원 구입 동구 저소득층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7일 오전,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656매(1000만원 상당)를 구매해 동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정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택 동구구청장, 한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청사에서 진행됐다. 또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역의 지역민과 국내외의 관광객이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5일 1억원, 4월 29일 2000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했으며, 이번 1000만원을 구매함으로써 총 1억3000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또한 광주은행 전 지점 객장에 '수리달이' 인형을 전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수리&달이 인생사 콘서트'를 실시해 분위기 불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해 광주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체육 진흥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후원은행으로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내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업 88% "수습 기간 필요" "최고 높이 39층"...주거복합단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평균 기간은 신입사원 3.1개월

기업 10곳 중 9곳은 신입사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까지 수습 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최근 기업 557곳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주말 사흘간 2만 1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대산업개발은 밝혔다.

수습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서'가 71.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조직 적응력 검증이 필요해서' (57.4%)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서' (33.4%)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2.2%) ▲'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해서' (26.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현대산업개발, 847세대 구성 모텔하우스 2만여명 다녀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선보이는 고급 주거복합단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4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첫 주말 사흘간 2만15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방문객들은 화정 아이파크의 윈스톱 입지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모(40)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소풍·여가를 즐기려면 대중교통이 나 차량을 이용해 도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화정 아이파크는 도심 안에 있어 교통·

교육·쇼핑·문화시설 모두를 걸어서 이용하는 만큼 거주에 최적 입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지는 도심 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유스퀘어를 비롯해 반경 1km 이내에 광주지하철 1호선 화정역과 농성역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복층형 구조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픈형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맘앤키즈카페, 작은도서관은 물론 광주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이 적용돼 광주를 대표하는 고급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2개 단지 내에 지하 4층-지상 39층 총 8개동으로 지어지며, 아파트 705가구와 오피스텔 142실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654가구, 148㎡ 45가구, 218㎡ 6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69㎡ 92실, 79㎡ 50실 등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다음달 3일 현장추첨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11월로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108 일원에 마련됐다. 분양 문의, 062-351-770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관세 납기일 알려드려요"

31일부터 서비스 시행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오는 31일부터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안내는 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 가산금(미납세액의 3%)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안내는 광주본부세관에서 발급한 고지전 중납기가 말일(末日)로 특정된 월별납부 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기만료 전일(前日)까지 미수납된 권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안내서비스로 체납 가산금에 따른 경영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